

#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0. 27.

발 의 자 : 김승남 · 김홍걸 · 주철현  
이용빈 · 위성곤 · 서동용  
최종윤 · 이원택 · 민병덕  
안호영 · 김민철 · 신정훈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이 강화·신설되었으나,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무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선임의무 및 선임시점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6조의2제1항 중 “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”를 “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부칙 제1조 단서 중 “제46조의2제1항”을 “제46조의2제1항 후단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법률</p> <p>제46조의2(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)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(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·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.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)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법률</p> <p>제46조의2(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<u>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</p>

다만, <u>제46조의2제1항</u>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-. ---- <u>제46조의2제1항 후단</u> - ----- ----- -----.
--	---